아는 사람만 아는 '유흥업소 폐쇄영업'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남구 확진자 업소에 손님 · 직원 500여명

현금결제 대부분…동선 파악 난항 예상

코로나에 감염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이 손님 · 직원 등 118명과 접촉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 44번 확진자 A씨(36 · 여)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본에서 귀국한 가수 윤학(본명 정윤학 · 37)의 지인으로, 지난달 26일 정씨를 만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의심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가량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 해당 시간대에 업소를 찾은 손님과 직원은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조사 결과, 손님과 직원 등 모두 118명이 A씨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검사를 실시한 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날 룸살롱 · 클럽 ·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간 영업을 이어 온 업소들이 폭발적 집단감염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물밑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일부 업소의 경우 접촉자들이 방문 사실을 밝히길 꺼릴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손님과 업주 사이에 현금 결제가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마담'이 손님으로부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미리 받은 다음 여성 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고객 명단을 공유하는 등 업소 차원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동선 추적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 및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통해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접촉자를 분류하는 방역당국으로서는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초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사태가 촉발될 수 있는 점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유지'를 목표로 진정세를 유도하려던 방역당국 방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9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 13일 동대문구 동안교회와 PC방 일대, 16일 경기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25일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등 한 달간 수도권에서만 최소 4회에 걸친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김윤호 기자

'유흥업소 무용담' 늘어놓던 남성들 "조심하자" 다급한 문자

룸살롱 여직원 확진 소식에 방문자들 향해 비난 물결

맘카페엔 아내들 공분 "내 남편이었다면 시댁에 격리"

'너도 조심해라.'

7일 오후 4시40분쯤 강남에 사는 3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이런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다. 친한 선배가 보낸 것이었다. 선배는 A씨에게 "요즘 업소를 방문했다가 큰일난다"면서도 "혹시 유흥업소 직원과 접촉한 연예인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 최대 유흥업소 여직원 B씨(36)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일대 유흥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유흥업소의 '큰손' 강남 거주자나 인근 직장인 모두 '조심하자'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B씨 감염 소식이 전해진 전날 밤 강남 주요 룸살롱과 가라오케, 클럽 상당수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진다.

역삼역 인근 직장을 다니는 C씨(38)는 "유흥업소에 '유' 자도 꺼내지 마라"며 "앞으로 다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개인 사업을 하는 40대 김씨도 "요즘 시국에 무슨 유흥업소냐"며 "발길 끊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나 주요 업소 정보를 무용담처럼 공유하던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엄마'들이 모인 맘카페는 들끓고 있다. "유흥업소 직원들의 자가 격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유흥업소 고객 가운데 누군가의 아빠도 포함됐을 것" "업소 갔다가 확진된 남성은 시댁에서 자가격리하게 해야 한다"는 불만에 찬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유흥업소 직원 B씨는 슈퍼노바 출신 윤학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윤학은 사흘 뒤인 27일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윤학과 B씨는 전날인 26일 만났고 B씨는 29일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그의 룸메이트도 결국 확진판정을 받았다

업소는 강남구청의 행정요청으로 2~3일 이틀간 임시휴업을 했으며, B씨의 확진 소식을 접한 뒤 12일까지 휴업을 연장했다. 7일 오후 업소 앞을 오가는 시민들은 "여기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라며 수군거렸다. 업소 유리문 너머로 하얀색 배경 칠판이 보였다. 칠판에는 '민아' '은설' '보람' '윤서' '은정' 등 직원들의 닉네임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B씨는 지난 3월27일 저녁 8시 역삼역 인근 소재 업소에 출근해 다음 날인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손님과 직원을 포함한 500여명이 업소를 드나들었다. 종업원 100여명을 둔 이곳은 강남 최대 규모 업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8층 대형 건물 가운데 지하 2개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른바 '룸' 40여개가 내부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이번 감염 사례를 놓고 집단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는 배경이다. 유흥업소 특성상 이용자는 '다닥다닥' 붙을 수밖에 없어 감염 위험에 정면으로 노출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살롱 형태의 업소라 '신천지' 때처럼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업소가 회원들과 직원들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검사 결과를 나와야 알겠지만 앞으로 2~3주 안에 유흥업소 관련 감염자가 추가로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풀린 틈을 타 또다시 우려할 만한 감염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국에 유흥업소를 갔다는 자체만으로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용자들이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기거나 검사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보건당국이 유흥업소 관련 감염자를 파악하는 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영등포구청 직원이 2m 거리 두기 팻말을 들고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실패 '씁쓸한 유행'

봄나들이 인증샷 올리며 해시태그…"자랑이냐" 비난 쇄도

정부가 '아직 안심단계는 아니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지만 이를 비웃듯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봄나들이와 꽃놀이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 '#사회적거리두기실패'를 검색하자 1000여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왔다. 게시물에는 봄날을 맞아 나들이를 떠나거나 꽃축제를 다녀온 인증샷과 이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뒤섞여 있었다.

지난주 벚꽃 구경을 다녀왔다는 한 여성은 울산의 벚꽃길을 방문해 찍은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리며 #사회적거리두기실패를 해시태그로 달았다. 여성은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더라"며 #벚꽃놀이, #벚꽃스타그램 등도 해시태그로 달았다. 인증샷에는 아이러니하게도 '000벚꽃길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함께 찍혔지만 사진에는 "현수막만 없어도 100점짜리 사진"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지난 주말 경기도 수목원에 아이와 함께 다녀왔다며 아이와 수목원이 찍힌 인증샷과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아직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추천으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왔다"며 "오늘 바람 잘 쐬었으니 이제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잘 지켜보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회적거리두기실패를 해시태그로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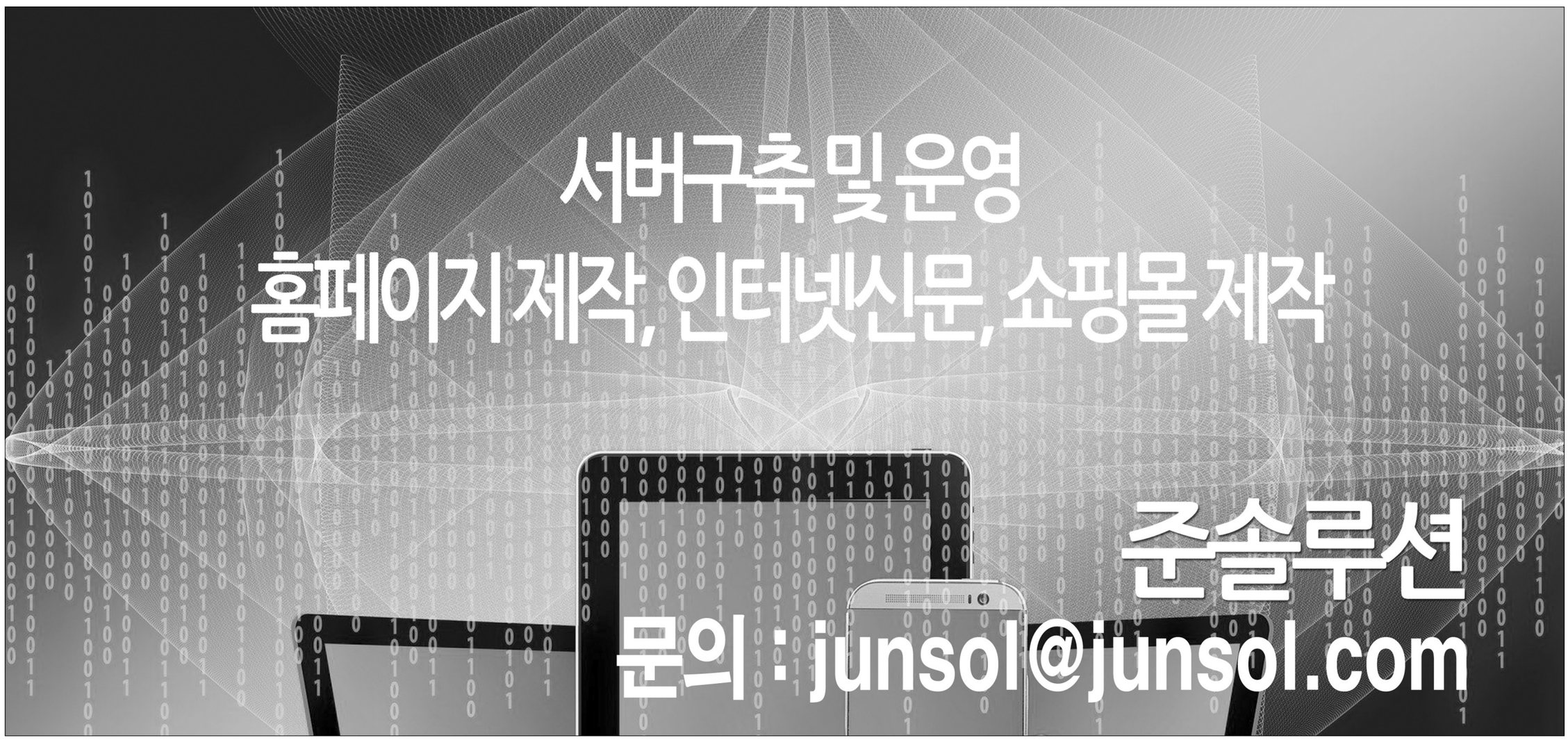
#사회적거리두기실패에 이어 #눈치게임실패라는 해시태그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눈치게임실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이 붐비지 않을 곳을 방문했으나, 예상외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놀이공원에 다녀와 인증샷을 올린 네티즌은 #사회적거리두기실패 #사회적거리두기위반 #눈치게임실패 등을 해시태그로 달며 "(놀이공원에 간 것이) 죄스럽긴 하지만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 손소독제도 들고 다녔다"고 전했다.

마치 자랑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고, 봄나들이 인증샷을 올리는 이들도 많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눈에 띄게 줄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장기화되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이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한 네티즌은 인스타그램에 사회적거리두기실패 해시태그를 검색한 이미지를 올리며 "이게 자랑인가.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있는거 보면 느끼는 것이 없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이제 다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밖으로) 다니는 것 같다"며 "식당과 카페 등이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 아이들 제발 유치원과 학교 좀 가게 하자"고 호소했다.

김윤호 기자